

감사와 사랑이 더 풍성한 ‘추수감사절’

2020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실시
9월 27일까지 쌀 구입 현금 및 대상자 선정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사르밧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온누리교회가 섬기고 있는 농어촌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쌀을 구매한 다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프로젝트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원하는 온누리교회 순은 9월 27일(주일)까지 쌀 20kg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의 현금을 순 이름과 송금인 이름으로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도 참여할 수도 있다. 성도 개인이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에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생년월일과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서 쌀 20kg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을 계좌로 보내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는 온누리교회 공동체 및 대학청년부에서 선발한다. 대상자 추천 및 선정은 각 공동체 담당목회자와 대표 장로가 협의해서 하면 된다. 9월 27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담당사역팀에 전달하면 된다. 10월 11일(주일) 이후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들의 주소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를 쌀에 부착해 배송할 예정이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온누리교회 각 순에서 사르밧 프로젝트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감사와 사랑이 더욱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기훈 목사와의 일문일답.

사르밧 프로젝트가 궁금합니다.

“올해 온누리교회는 이웃사랑 실천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소외된 이



이번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에서 이웃들과 나눌 쌀을 재배한 농부와 들녘.

웃들을 위하여 공감소비운동을 실시했고, 2020년 엔젤트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프로젝트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섬기고 있는 농어촌교회와 연합해서 지역사회도 돕고, 온누리교회 성도도 돕는 일석이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공동체에서 추천해 주면 교회가 섬기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농어촌교회와 연합해서 쌀을 구매하는 방식이 인상 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돕고, 농어촌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성도, 온누리교회와 지역교회,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등이 연결되는 아주 뜻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의: 02-3215-3434

계좌: 각 캠퍼스별 해당계좌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 제작

차세대사역본부 유튜브 채널 시청

차세대사역본부에서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차세대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은 주일 설교 본문에 맞춰 ‘느헤미

야’를 주제로 제작된다.

영상은 부서별로 제작하고 있다. ‘예수님의 꿈아이’에서는 ‘느헤미야의 다섯 손가락 기도’를 주제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방법을 소개한다. ‘꿈이자리

는땅’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과 성경퀴즈, 가정 나눔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한다. ‘파워웨이브’ 가정 소그룹 영상은 주일 설교 본문에 맞는 주제 영상을 제작한다. 부모와 자녀가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영상이다. 차세대 가정 소그룹 가이드 영상은 차세대사역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2020 엔젤트리 사연접수

10월 25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2020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한다. 10월 25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엔젤트리는 매년 연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엔젤트리 사연 접수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엔젤트리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엔젤트리 사연접수는 온누리교회 성도만 할 수 있다. 다만 타교회나 타교회 성도, 다른 기관 담당자가 엔젤트리 사연접수를 원할 경우에는 사회선교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엔젤트리 사연을 접수할 때에는 대상자의 사연, 성별, 나이, 선물, 연락처, 주소 등을 꼼꼼하게 기입해야 한다. 엔젤트리 사연신청자의 개인정보도 기입해야 한다. 올해 연말 엔젤트리 대상자들에게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엔젤트리는 매년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지 제출 한 주 앞으로!

27일까지 순장, 총무, 목회행정실

온누리 공동체 ‘2020 에스라 프로젝트’ 필사지 제출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9월 27일(주일)까지 공동체 순장이나 총무에게 자신이 맡은 분량을 완료한 필사지를 제출해야 한다. 각 공동체 총무들은 성도들이 제출한 필사지를 성경 한 권으로 취합해서 10월 11일(주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교역자, 장로, 예수제자학교(JDS), 공동체 소속이 안 된 성도들은 9월 27일까지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장선민 자매(CHPLUS공동체)는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를 하면서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시간을 정말 뜻 깊게 보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양오순 권사(경기A공동체)는 “몇 번이나 틀려서 다시 쓸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머리와 가슴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다”며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에도 열심히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빙고 02-3215-3744, 3263

양재 02-570-7356, 7918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공산주의 세계관의 메타네러티브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뉴에이지는 힌두교, 불교, 도교 등에서 유래한 범신론적인 세계관으로 진화론, 환생, 윤회, 깨달음 등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조나단 아돌프는 “뉴에이지는 일종의 유토피아주의로 더 나은 사회 즉 인류가 자신과 자연, 그리고 전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New Age)를 창조하려는 열망을 가진 운동”이라고 요약한다. 이들은 뉴에이지를 이루려면 개개인의 큰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혹은 지구를 큰 나(브라만)로, 자기 자신을 작은 나(아트만)로 부른다. 이 아트만이 브라만과 하나 되는 영적 각성의 순간을 지날 때 새 시대(뉴에이지)가 도래한다고 믿는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것은 상대주의를 대변하는 구호들이다.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종착점은 동일하다. 단지 그 종착점으로 가는 길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힌두교의 “모든 사물에 신적인 요소가 있다”, 불교의 “모든 생명은 윤회와 해탈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의 뉴에

이지식 표현인 것이다.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뉴에이지를 코스믹(우주적) 인본주의라고도 한다.

불교는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 속에 뿌리내렸고, 공교육을 통해 국가전통 문화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래서 뉴에이지 이념의 관점은 부분이 마치 기독교의 진리인 것처럼 오인될 수도 있다. 또한 뉴에이지는 상대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포용성을 자랑한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기독교를 독선적이라 공격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뉴에이지의 정체를 알고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범신론을 주장하는 힌두교는 3명의 주된 신이 있다.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 비슈누는 유지의 신, 시바는 파멸의 신이다. 원래는 하나이지만 역할에 따라 다른 신격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들 3신에서 필요한 역할에 따라 파생되었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나타난 신을 아바타라고 한다. 뉴에이지에서 인간은 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신의 일부라고 믿는다. 그러나 전생의 업보(카르마)에 의해 더 높거나 낮은 계급의 인간 혹은 동물로 환생한다고 믿는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며 신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나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뉴에이지에서 인간의 문제를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아닌 것(空)을 마치 무엇이 있는 것(色)

처럼 느끼면서 아등바등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색즉시공, 공즉시색).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셋째, ‘그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실제로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끝없는 욕심을 부리는 데 있다고 믿기에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실재로는 없는 것(空)임을 깨닫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아트만인 내(我)가 우주(梵) 혹은 창조주인 브라만과 하나가 되면(梵我一如)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 깨달음(모크샤)을 얻으면 끝없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해탈)이다. 해탈의 순간을 지나면 힌두교에서는 브라만이 되는 것이며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뉴에이지는 아주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힌두교의 고행, 수련, 불교의 6바라밀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런 고전적인 방법들 외에 참선, 요가, 단전호흡, 자연요법, 점술, 영매술, 심지어 환각제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브라만과 하나가 되지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다.

넷째, ‘결국 나는 어디로 가는가?’ 뉴에이지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며 생명은 끝없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믿는다. 해탈하지 못한 모든 영혼은 전생의 업(카르마)에 따라 영원한 범(다르마)을 충족하는 선업과 그에 어긋나는 악업의 크기에 의해 더 나은 인생 혹은 더 못한 인생이나

동물로 환생한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윤회와 해탈을 통해 브라만이 될 수 있는 신적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살생을 금한다.

스탠퍼드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뉴에이지는 전 인구의 5~10% 가량으로 최소한 1,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영혼운회설과 점성술을 믿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6천만 명에 이를 수 있다. 미국 성인 중에서 죽은 자와 소통이 가능하다고 믿는 비율이 12년 전 18%에서 35%로 증가하였다. 환생을 믿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에이지는 점성술, 요가, 명상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자연보호, 동물보호와 모든 생명존중이라는 구호 아래 집결하고 있으며, 그 이념을 담은 음악, 서적, 영화(아바타, 스타워즈, 매트릭스 등)들을 통해 은근하고 폭 넓게 스며들고 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 내부에서도 다양한 전통종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들과 사랑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선과 악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진리라는 편협한 주장을 하지 말고, 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고 한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와 마치 자신이 주인인양 행세하고 있다. 바로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있는 뉴에이지의 정체이다.

묵상: 종교다원주의와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기독교의 구원론이 과연 편협한 것인가?

전도, 이렇게 합시다!

전도는 영혼 사랑이자 인내의 열매

병원에서 전도를 막 시작할 무렵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첩판을 걸어놓고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적으며 수시로 묵상하곤 했다. 어느 날 지역 교회 사모님이 그 첩판을 보고는 “원장님, 전도는 영혼 사랑인 것 아니시요?”라고 했다.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전도한 것은 전도 훈련을 받아서도 아니고, 영혼을 사랑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나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이끌려서 시작한 일이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도는 영혼 사랑’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고 명심하게 되었다.

진정한 전도는 죽어 가는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전도자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전도에는 사랑과 함께 인내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려면 성령님이 함께하셔야 한다. 하지만 전도대상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한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이처럼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

하루는 우리 병원에 50대 초반 여자 환자분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평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형 전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도망가기 바빴던 환자였다. 그 환자는 어지러움증이 심했는데 중

합병원에 가지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겁이 난다며 그냥 약만 달라고 했다.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약을 처방해줬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진료가 끝나고 그녀가 말했다.

“원장님 말씀대로 교회에 가야겠어요. 요새 아프다 보니 원장님이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던 말이 자주 생각나요.”

복음의 메시지는 땅에 떨어져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는 단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장경모 장로
(온누리전도학교,
〈날마다 111 전도〉
저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공동체

느헤미야 3:1~12

“하나님의 세계는 차이와 갈등을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을 연결해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이
서로를 끌어안는 창조적인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개인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스스로 결단하면 되는 것이기에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탐심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모두가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한 나라가 선한 일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욕망, 이기주의, 서로 간의 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모두 함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선한 일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뛰어넘어 선한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 속에 존재해 왔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1차, 2차 포로귀환 때 성전이 어렵게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은 삶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재건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식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선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모두 함께 어떤 일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차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며, 긴장이 생깁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게 하는 것, 익숙했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의 역사는 모든 갈등과 차이, 긴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이루는데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뭍이란 모두가 동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선한 목표를 위해서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차이를 넘어서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차이와 갈등, 긴장 에너지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

사회 안에 존재하는 차이와 갈등, 긴장의 에너지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자동적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란 긴장을 끌어안는 제도입니다. 차이로 인한 긴장,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한 갈등을 끌어안을 때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어느 기자가 링컨에게 “연방을 반대하고 이탈한 남부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링컨은 “나는 그들을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는 형제들처럼 대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남부인들이 세운 임시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를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했을 때 링컨은 “남에게 판단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형제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감싸줘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미합중국의 대통령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권의 회복을 포함한 전면적인 사면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부의 주들이 탈퇴하였다 돌아오는 것을 형제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며 절대 죄를 묻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이루었던 링컨 대통령의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링컨의 리더십을 미리 보여준 지도자가 바로 구약의 느헤미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의 상세한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무미건조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 익숙하지 않은 지명, 해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기록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 링컨이 보여 줬던 민주주의 지도력의 시각으로 이 기록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루었던 성벽 재건이 서로 다른 직업, 관심, 능력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긴장과 갈등을 모두 뛰어넘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이룬 매우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더 중요한 목적과 느헤미야의 지도력

느헤미야는 성벽의 구간을 40여 부분으로 나누어 동시에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재건을 완공했습니다. 아주 길지 않은 성벽 구간을 40여 부분으로 나누어 한꺼번에 건축한 것은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일의 효율과 목적을 동시에 극대화한 방법입니다. 때로 효율과 목적은 상반되기 쉽습니

다. 효율을 따지면 전문적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모르는 비전문가들이 공사에 참여하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효율적이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끈 백성들이 함께했던 성벽 재건은 효율과 목적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성벽의 길이를 약 3.2km 정도로 볼 때 40개 부분으로 나누면 한 공사 영역당 80m 정도 됩니다. 느헤미야는 동시에 그리고 짧은 기간에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영역을 나눴습니다. 전문적인 사람만 성벽재건에 참여한 것이 아닌데도 자물쇠와 빗장까지 달 정도로 완성도가 있었습니다. 또 성의 각 부분이 용도에 맞게 건축되도록 했습니다. 각 문의 용도가 달랐습니다. 성에는 문이 10여 개 있었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양들을 들어오는 문이 있었고, 고기들을 들어오는 어문이 있었고, 또 오물을 골짜기에 버리는 분문 등이 있었습니다. 각 부분이 용도에 맞도록 건축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은 중간 지도자들로서 권한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9절, 12절, 14절, 19절까지 모든 이름들이 중간 리더십들의 이름입니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지도자가 책임을 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권한을 위임해 주는 일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역, 직업, 계층, 성별을 넘어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참여

“그다음은 하루밤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했으며 그다음은 하삼냐의 아들 핫두스가 복구했습니다”(10절).

28절에서 31절까지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복구했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맞은편을 복구하는 것은 곧 자기 집 벽을 쌓는 것이고, 자기에게도 아득이 됩니다. 지혜로운 일의 분담입니다. 일의 효율성만이 아니

라 선한 일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 되는 것이 선한 목적입니다. 자신의 삶에 몰두했던 것을 뛰어넘어,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긴장을 끌어안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벽 재건의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목적입니다.

선한 일은 대개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두 사람이 하고,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네 사람이 하고,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열 사람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선한 일이 확대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 사람이 그 일을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의 목적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선한 목표를 향하여 차이를 넘어서서,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모든 지역, 계층,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성벽재건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의 목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만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백성들도 참여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가 나오고, 5절 드고아, 7절 기브온과 미스바, 13절 사노아, 14절 벧학게렐, 16절 벧술, 18절 그일라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행한 공사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 집을 떠나 먼 지역에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또한 각종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금세공업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금세공업자들은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을 다치면 직업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거친 일을 했습니다. 향품업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비교적 부유하며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면에 계속〉

이주민들의 선한 이웃이자 좋은 친구

평택M센터, 이주민 가정과 일터, 생활시설 방역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국에 어린 자녀나 연세 드신 부모님을 두고 한국에 온 이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도 상당하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경제적 궁핍까지 겪고 있는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방역부터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마음 방역까지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상황이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외롭지는 않다. 선한 이웃이자 좋은 친구 평택M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평택M센터는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앞장서서 돕고 있다. 이주민들의 가정과 일터, 생활시설 등을 찾아가 꼼꼼하게 소독을 해주고, 심리적 방역까지 책임지고 있다. 평택M센터의 그 아름다운 헌신에 이주민들이 큰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평택M센터는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의 생활시설에 찾아가 방역 작업을 해주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국경을 뛰어넘었다. 국가 간 왕래가 갑자기 끊기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수많은 이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단기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귀국길이 막혀버린 이주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어린 자녀나 연로한 부모가 있는 이주민들이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고통자나 임신부에게

먼저 귀국 비행기 좌석이 배정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입국이 제한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도 현지에서 3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돈으로 50~60만 원 정도 드는데, 현지에서 두 달 이상의 월급이다.

고향에 책임질 가족이 없다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의 상황도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많은 이주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생활비조차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귀국길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이주민도 있다. 제때 치료를 받거나 약을 구하는 일마저 쉽지 않다. 결혼이나 유학 등 합법적인 이유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주민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하지만 불법체류 신분의 이주민들은 방역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 덕분에 외롭지 않다. 이주민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이주민들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이 바로 평택M센터다. 평택M센터는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을 돕고 있다. 수원 온누리교회 하가훈(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팀에서 지원해 준 소독약 15통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평택M센터 이광수 선교사와 전홍렬 선교사가 이주민들의 생활시설을 찾아가 방역 작업을 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주민 성도들과 직접 대면한지가 오래되어서 반가운 마음을 가득 안고 달려갔다. 그런데 오랜만에 마주한 이주민들의 생활상을 보고 이광수 선교사의 말문이 막혔다.

“이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쉼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화장실과 주방 등 필수적인 생활공간이 너무 비위생적이었고, 외출마저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 이주민들의 상황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오랜 장마로 곳곳에 곰팡이까지 피어있는 것을 보고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평택M센터 이광수 선교사와 전홍렬 선교사가 선봉에 섰다. 이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 소독약품을 뿌리고 청소를 했다. 평택M센터 인근에 있는 이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과 일터, 기숙사, 외국인 식당, 쉼터 등 이주민 생활시설 15곳을 방문해서 소독하고 청소했다. 단 한 곳도 소홀함 없이 구석구석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작업이 늦은 저녁때까지 이어졌지만 힘든 줄도 몰랐다. 이주민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이 그 만큼 컸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주민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돕고 보살피는 일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 여겨 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선한 이웃이자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 자기 성도(평택M센터)는 “식당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다 보니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소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주민 옥이 성도(평택M센터)는 자신의 가정을 위해 늦은 저녁 천안까지 달려와 준 평택M센터 선교사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데 우리 가정을 섬기기 위해 늦은 시간 먼 길을 달려와주신 선교사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 것도 해드릴 게 없는데 큰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사랑을 나눠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역칼럼

인생길을 가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뜻밖의 때가 있다. 여러 가지 사고나 재해로 인해 애써 일궈 놓은 것들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엉망이 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리기도 한다.

예측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덮어 버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다. 많은 사람들이 애써 일궈 놓은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수많은 예측과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옛말에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라는 말이 있다. 멀고 힘든 길도 좋은 친구와 함께 간다면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갈 수 있다는 의미다.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좋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면 격려와 위로 등 신비한 활성화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보다 극심한 고독과 스트레스, 절망감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경제적인 고통보다 정신적, 정서적 고통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모두가 어려운 지금은 나를 넘어 이웃을 돌아볼 때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함께 걸어갈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이 땅을 찾은 이주민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적지 않은 이주민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 회사의 부도나 재정 악화로 실직했다. 정신적 충격과 미래에 대한 막막함,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고독과 외로움을 홀로 끌어안은 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지금 친구가 필요하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헤아려 줄 좋은 친구 말이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다. 그곳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땅이었다.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사 9:1-2).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도 “갈릴리에

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 땅은 어두운 곳이었다. 천대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함께 계셨고, 친구가 되셨다. 짙은 어둠으로 뒤덮인 그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으셨다. 그냥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들의 좋은 친구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애 기간 동안 효율성과 이익을 계산했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을 것이다. 그곳에는 유력한 자들과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과 위로와 격려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냥 외롭고 힘든 그들과 함께 길을 가는 좋은 친구가 되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 이광수 선교사(평택M센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선교

2000선교, 선교사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업로드, 구글 지스위트 활용법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를 멀어지게 했다. 선교지 상황도 마찬가지다. 선교사와 현지인들, 성도들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 복음을 전하던 현지인들과의 만남 자체가 줄었고, 기도와 아웃리치로 든든한 힘이 되어주던 성도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졌다. 특히 아웃리치 중단은 선교사와 현지인들, 성도들 모두에게 큰 아픔과 해소될 수 없는 그리움을 남겼다. 코로나19는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를 더 많이 가져올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2000선교본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과 선교리더십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을 실시했다. 발 빠르고,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대처가 아닐 수 없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00선교본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준비하는 일환으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과 선교리더십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사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비대면 선교도구를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선교사를 위한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1차 교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유튜브(YouTube) 시대의 선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션', '온누리 온라인 선교전략'을 주제로 실시했다. 선교사를 위한 비대면 원격사역 2차 교육은 '유튜브(YouTube) 영상제작 및 선교적 활용'을 주제로, 각 한 달 동안 진행됐다. 교육에 참석한 선교사들이 직접 유튜브를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 하는 과정까지 꼼꼼하게 배웠다. 그 과정에서 영상을 활용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을 발견했다.

박요셉 선교사(중동A)는 생각만 하고 있던 영상제작 기술을 배우고, 선교에 활용할 수 있



그의 사랑과 은혜의 모든 승리 외쳐
For all of the victories His love and grace, for us He's won

홈스쿨링 노하우를 나누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김바울 선교사의 첫 번째 영상.

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선교사를 위한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에 참석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자유롭게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나지 않

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도구가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활용해서 전도와 제자양육, 예배까지 비대면 사역을 확장할 수 있다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줄 것입니다.”

일본에서 영상을 활용해서 선교하고 있는 강진아 선교사는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의 효과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저는 일본에서 기독교 역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활용한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선교사들이 제작한 영상 몇 편을 선정해서 2000선교본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선교사를 위한 비대면 원격사역 3차 교육은 '구글 지스위트(Google G-Suite)를 활용한 온라인 선교'가 주제였다. 선교사를 위한 비대면 원격사역 3차 교육에서는 선교사들이 구글 클래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 구글 클래스는 학생관리, 과제, 질문 등 학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가진 온라인 교실이다. 온라인 성경공부, 온라인 일대일제자 양육에 활용하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2000선교본부는 앞으로도 선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선교사 위한 비대면 원격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도 콘텐츠 크리에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도전을 받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을 알고 싶은 목마름이 생겼다. 그 목마름 또한 강사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채워갈 수 있었다. 정말 감사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세팅에 대한 자세한 강의를 들으면서 과거 막연한 두려움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을 주저했었던 일이 떠올랐다. 이제는 내가 직접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업로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또한 썸네일, 채널 아이콘 대한 이해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에서 정말 많이 배웠다. 그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다른 강의도 찾아보고 있고, 더 나은 채널 아이콘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대만 교회가 아직은 성장위주의 사역이 대부분이라 성도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나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우리 가정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서 대만 성도들에게 제공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홈스쿨 관련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고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고 있다. 대만뿐만 아니라 화교권, 한국에서도 홈스쿨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글, 중국어, 영어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기획하고 있다. 홈스쿨 영어교육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집에서 아이들 영어 교육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했고, 홈스쿨 음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뮤직비디오도 만들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해서 내가 직접 믹싱하고, 대만 지역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었다. 한국에 계신 후원자들에게 우리 가정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만들었다. 앞으로도 내가 제작한 영상을 활용한 사역이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를 부탁한다.

/ 김영호 선교사(대만)

새로운 비전과 기대가 생겼다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에 참석하면서 새롭게 바뀌고 있는 사역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접근해야 할지를 배웠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구되고 준비되어있는 부분들을 선교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제적이고 기술적인 면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기초적인 기술 정도만 알고 있던 나의 동영상 제작 기술이 발전했다. 원격강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CGNTV의 '나침반 바이블'과 '공동체 성경읽기', 김윤희 교수의 '성경 에센스'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선교지에 자막이나 더빙 등을 통해 제공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선교지 상황에 맞게 제작된다면 더욱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비대

면 원격사역 교육이 내가 선교지에 제공했으면 하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기술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상당 부분 해결해 주었다. 물론 수준 높은 영상제작을 위해서는 전문성, 영상제작 시간과 인력, 보안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 문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비대면 원격사역 교육에서 배운 내용들을 무슬림 구도자나 회심자들에게 활용하면 유익할 것 같다. 무슬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다는 새로운 비전과 기대가 생겼다. 나는 누구나 쉽게 보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앞으로도 비대면 선교사역 교육에서 배운 사항들을 실습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유예복 선교사(방글라데시)

전문가 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힘들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시대, 더 좋은 부모자녀관계를 위하여



오은규 목사
(광명공동체)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이 새로운 경험은 사회적 환경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부모는 직장, 자녀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집에서 마주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의 직업생활과 자녀의 학업이 같은 공간 안에서 혼재되어 나타난다. ‘집콕생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증가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기존 삶의 방식이 달라져서 절대적인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마찰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환경으로 모든 수업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부모들은 부모 역할 외에도 교사, 식사당번, 생활관리, 놀이 및 미디어 담당 등 거의 모든 역할을 도맡게 되었다. 대체적으로 아빠들보다 엄마들이 더 많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 불안, 분노, 답답함, 우울함 등 일 것이다. 변화된 환경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과 부모들은 예전보다 훨씬 큰 불안과 스트레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예민해진 부모와 사춘기 자녀들이 작은 일에도 분노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들의 학업과 생활을 돌보고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분노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과민해지고 불평이 생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해소할 수 있을까? 또한 부모자녀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하고,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나마 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에서 자녀와 갈등을 줄이는 방법

첫째, 코로나19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도 많은 경우 코로나19 이전을 떠올리며 그때의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염



원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이 상황이 바뀌겠지. 그리고 나면 모든 상황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현재의 상황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에게도 힘들지만 지금의 상황을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자주 할수록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부모는 일터에서, 자녀들은 학업의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집에 함께 거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세상 어떤 것도 공짜로 되는 것은 없다. 부부 사이도, 부모자녀 사이도 훈련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교회나 사회에서 배웠던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들을 적용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다. 혹시나 대화방법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책, 인터넷 등을 통해서 좋은 소통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적용해 보기를 바란다.

셋째,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춘기 자녀들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온종일 자녀들의 교사 및 생활 관리자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춘기 청소년들 또한 하루 종일 부모의 간섭을 받는 것 같아서 고독스럽고 답답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들의 학업계획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는 시간을 통해서 미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충

분히 앞으로 일어날 생활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고 대화를 나눈다면, 일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민주적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혹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 자녀들의 학업시간, 휴식, 스마트폰 사용, 인터넷 게임시간 등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나 자녀와 충분히 대화하고 결정해야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시간 배정을 양보할 필요가 있다. 상담현장에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과 스마트폰 사용 혹은 인터넷 게임 시간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유가 그들이 느끼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부모들이 제시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실천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번번이 부모와 마찰이 생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분노하지만, 사실 자녀 입장에서 불평등 계약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평소 자녀들의 상황을 감안하고 충분한 배려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넷째, 자녀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적으로 화를 내거나 야단치기보다는 부모 자신의 좌절된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자녀들은 늦게 일어날 것이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을 제대로 시청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과제물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과다한 인터넷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부모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 이때 부모는 침착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훈계나 주의를 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철수야 엄마가 아무리 깨워도 네가 일어나지 않으니깐 엄마는 너무 걱정이 되고 마음이 힘들단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아빠가 지금은 몹시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지금은 자리에 돌아가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자녀들 역시 부모가 자신들과 대화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하게 된다. 그냥 화내고 욕박지르면 자녀들은 부모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좌절감을 느껴 대화를 거부하게 된다. “어차피 이야기해봐야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테니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부모가 불안한 이유는 자녀가 늦게 일어나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고, 시험을 못 치거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더불어 자녀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이 힘들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녀를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실패할지라도 계속 반복해야 한다.

다섯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부모라도 힘들지 않을 수 없다. 가정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비슷한 학부모들 혹은 순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꺼내 놓고 나눌 필요가 있다. 힘든 감정을 입으로 토로하고 뱉어내다 보면 훨씬 더 정서적으로 시원함을 느끼고,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겪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동지애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서 적절한 상담 및 코칭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섯째,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의 어려움과 고충을 나누고, 기도해 보자.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시대 이상적인 부모자녀 대화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 낯설고 처음 가보는 경험이다. 중요한 사실은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이 시기를 다시 올 수 없는 가족들의 유대와 연대를 경험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최고의 지혜인 황금률 말씀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니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새기고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대한다면 코로나 시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가정예배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CGNTV 아빠.가. 출연 이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지 2~3주 정도 지나면서 아이들의 집중도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처음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신기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찬양이나 율동을 할 때는 집중도가 괜찮았는데 설교에 들어가면 집중하지 못했다.

그즈음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이하 아빠.가.)’ 촬영팀의 연락을 받았다. 아빠.가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다. 또한 차세대 사순절 40일 말씀쓰기 캠페인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정예배를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라고 여겼다.

촬영을 앞두고 그날 나눌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긴장했다. 그러면서도 예배에 대한 깊은 몰입도를 보였다. 아빠.가. 촬영 이전에는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달라졌다. 주일 저녁 CGNTV 아빠.가를 보자고 하면 자기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인지 굉장히 좋아한다. 보통 30분 이상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1시간 이상 촬영을 경험했기 때문인지 예배의 흐름을 알고 익숙하게 참여하고 있다.



전용우 순장 가족은 가정예배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시간을 정하고, 모여서 분위기를 잡는 게 의외로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정예배를 인도할 때랑 아내가 인도를 할 때도 차이가 있다. 나는 먼저 질문을 하고 하브루타 형식으로 가정예배를 인도한다면, 아내의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말씀을 물어보고 왜 그런지 물어보는 쉼마 형식

으로 가정예배를 인도한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깊이 있는 대답들을 할 때가 있어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고 있다.

우리 집은 아이들이 네 명이라 네 권의 교재를 참고해야 한다. 눈높이를 영아부와 유치부 자녀들에게 맞춰서 주로 영아부와 유치부 교

재를 활용하고 있다. 주일예배에서 노히태 목사님이 짚어주시는 가스펠 프로젝트 주제와 질문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이들이랑 주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상을 챙기기에 급급했었다. 한여름에 이사하고 정리를 하느라 가정예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집중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겨서 나와 아내가 번갈아가며 한 주 동안 가정예배를 네 번이나 드린 적도 있다. 나는 주일에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아내는 주중에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아이들과 QT책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고, 기도했다.

이전에도 한국 교회에 가정예배가 많았다. 그런데 과거에 가정예배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종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강압적인 분위기와 예배와 삶의 차이 등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우리 가정은 아이들의 참여가 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리고자 애쓰고 있다. 내가 꿈꾸는 가정예배의 방향은 찬양과 말씀이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는 예배다. 온 가족이 가정예배에 대한 예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 전용우 순장(한강공동체)

CGNTV 아빠.가. 출연 이후

우리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가정예배에 대해 막연한 인식만 가지고 있었다. 집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가정예배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교회에서 드리던 예배를 가정에서 그대로 드리는 것이 가정예배라고 생각했었다. 가정예배를 기대하거나 재미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이하 아빠.가.)에 출연하면서 가정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가족들이 다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가 정말 재미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7살 남자아이 재형이와 5살 여자아이 연재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유치부와 영아부 동영상 예배 등을 활용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모든 과정에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 흥분지수나 피곤도에 따라 그때그때 반응이 다르다.

그런데 무엇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 아이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순식간에 가정예배에 몰입한다. 정확하게 어떤 포



김동원, 김수진 성도 가정은 가스펠 프로젝트와 영상예배를 활용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

인트가 아이들에게 흥미를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예수님이 나오는 콘텐츠를 무척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몇 시간이고 하곤 한다.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당 예배만 드릴 때는 아이들과 예배에 대해 나누는 게 부족했던 것 같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조

금 더 알게 되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과 배우고 싶은 것을 알아가기도 한다.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다. 예상 못한 질문을 만나면 성경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때로는 목사님께 여쭙보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예배가 활성화된 은혜가 분명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다. 아

이들이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이라는 것을 금방 잊는다. 주일이라는 개념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 처음에는 “교회를 왜 안가?”라고 물어보다가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노는 날로 인식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주일에 할 일들이 많았다. 교회에 갈 준비부터 예배부서 준비물을 챙기고, 예배가 끝나면 삼삼오오 모여 성경공부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은 밖에 나가지도 못할뿐더러 시간을 의미 없이 쓴다는 느낌이 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허전함을 느낀다.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 괜스레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든다.

CGNTV 아빠.가.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정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재미있었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편안하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가정단위의 순예배를 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시스템을 설치하고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시스템에 적응만 하면 정말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교회 모임이 없어지고 있는 지금, 가정단위의 순예배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 같다.

/ 김동원 성도, 김수진 성도(서초C공동체)

가정단위 순예배가 새로운 활력을!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나는 올해로 길공동체에 소속된 지 8년차다. 대학청년부 바이블 아카데미 CDC 수강에 대해서는 수년째 정말 많은 분들의 강권을 받았다. 하지만 늘 바쁜 사업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요리조리 참 잘도 도망 다녔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온라인 과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회(?)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편하고, 쉽게 CDC 과정을 수료하려 했던 나의 불순한 동기가 숨어 있었다.

나는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라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참 많았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첫 강의에서 많은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억울한 감정이 올라왔다. '지금이라도 나중에 한다고 할까?' 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아마 과제 걱정을 못 이겨서 이번 기회를 놓쳤다면 나는 계속 변명만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것 같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을 이어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을 들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을 꼽으라면, 억지로라도

진짜 행복 맛볼 수 있는 기회



권소현 자매는 'CDC' 과정을 통해 진짜 행복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말씀과 가까워져야 했고, 반복된 습관이 어느새 내 삶에 스며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새벽 일찍 온라인 홀리스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전날 저녁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게 되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잠이 들던 금요일 밤이 한 주를 마무리하며 여유롭게 소감문을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말씀이 먼저 떠오르게 하였다. 순종을 묵상했던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 내 뜻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게 된 것 또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이다. 또한 아침에 가장 먼저 듣는 음악이 이왕이면 찬양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천하고 있다. 삶의 작은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변화되고 있었다.

신앙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늘 분주하고 바쁜 내 삶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정리되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이전보다 지켜야 할 것이 다소 많아졌지만, 습관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신앙으로 세상이 주는 행복을 쫓던 이전의 삶보다 더욱 자유롭고 풍성해졌다.

아직 내 삶이 거룩한 삶이라 명명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분명 이번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을 수료하면서 만들어진 습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더 많이 바뀌어 갈 것이라 확신한다.

지금껏 나에게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 수료를 권유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를 아껴주시던 분들이 왜 그렇게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 수료를 강권하셨는지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된다. 과거의 나처럼 어떠한 이유론든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 이수 미루거나 망설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극 권유하고 싶다.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지금의 삶과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다. 꼭 찬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 권소현 자매(길공동체)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질문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주었다. 그 질문은 바로 '과연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이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내가 과연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순종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은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순종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단계들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셨다. 차근차근 그 길을 밟아 가야 하는 것도 새삼 깨닫게 하셨다. 또한 기도는 답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과정임을 알게 하셨다.

기도의 끝은 순종이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작은 순종부터 실천해서 예수

내 인생 가장 큰 질문과 그 해답



윤재니 자매는 'CDC' 강의를 들으며 영적인 흥년기를 극복했다.

님의 음성을 더욱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도 나의 과제였다.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과정은 내 삶에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완성됨을 깨닫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사실 나는 영적인 흥년기를 보내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뜻밖이지근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나를 짓눌러올 즈음 듣게 된 대학청년부 온라인 바이블 아카데미 CDC 강의는 내 믿음의 숨통이 트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어지러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고,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달려가던 길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

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영적인 고갈상태를 맞이했던 것조차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다. 자만하고 무지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셨다. 내가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하고, 나를 생명의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인생에서 만남은 참 중요한 것 같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때그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귀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을 만나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만나게 하신 것조차 감사한 일임을 고백한다.

앞으로 살아가며 내가 만나게 될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고의 만남을 지켜가며, 소중히 여길 것이다. 모든 만남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딛을 것이다. 모든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 윤재니 자매(Pole2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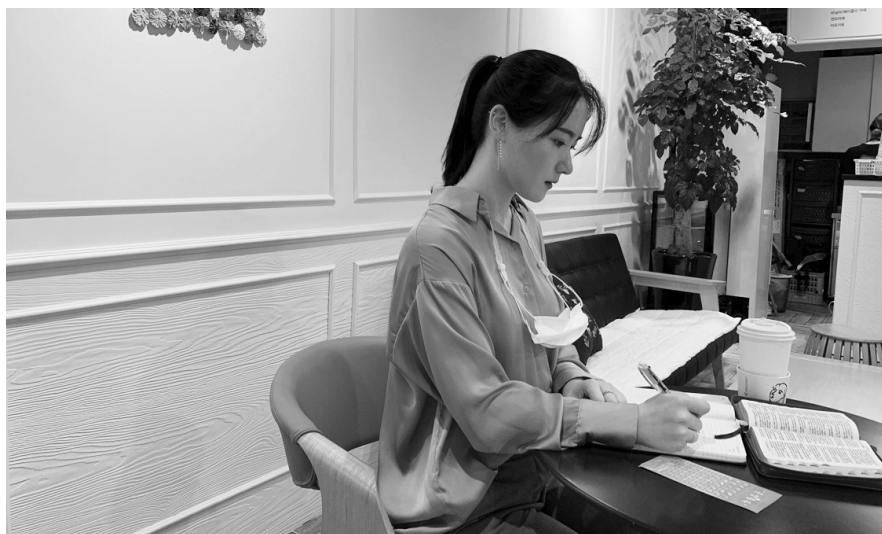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공동체 온맘통독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다. 그 속에서 하루하루가 분주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제 위기와 실업률 쇼크, 이례적인 비 피해 등 다 소 아픈 올해를 지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켜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도 힘든 세상이 된 것 같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늘 피로하고 예민해져 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잦은 다툼 소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따가운 손가락질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다. 교회가 어느새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온상으로 치부되어버렸다. 크리스천이라면 이유 없이 싫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다.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시간들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무분별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나와 같은 청년들은 수년 전부터 들려오는 ‘N포세대’라는 절망적인 단어가 이제는 익숙하다.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스펙, 지위, 배경 등으로 판단되고, 인간관계마저 ‘서로가



황유미 자매는 ‘온맘통독’ 성경읽기를 통해 본질을 되찾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했다.

서로에게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라는 머릿속 계산기를 두들겨가며 형성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랑하고 연합해야 할 공동체 안에서조차 종종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가 깨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비본질이 본질을 뒤엎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가짜가 아닌 진짜에

시선을 돌리고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한다.

나에게 ‘온맘통독’ 성경읽기는 본질을 바로 세우는 여정이었다. 하루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과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간구하게 되었다.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거나 휘둘리고 싶지 않다고, 현 시대의 프레임을 바르게 분별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갔으

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 의 집에 있어 여호와 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입니다”(시 27:4).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와 동행하는 것이다. 내가 영원한 기쁨과 아름다움이 되시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흠 많고 죄 많은 죄인밖에 안 된다는 거짓 메시지를 주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안식과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온맘통독 성경읽기를 통해서 말씀이 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역사하는 실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셨다.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였고,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셨다.

여호수아공동체 온맘통독 성경읽기 과정이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더라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계속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 사람이 되고 싶다.

/ 황유미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여호수아공동체 지체들에게 드리는 편지

사랑하는 여호수아공동체 청년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모두가 견디기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저는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맘통독’ 성경읽기를 통해서 받은 위로와 용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다 끝났구나,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예언서의 포로기를 묵상하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말씀에는 답답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 느껴져서 주님과 함께 울기도 하고, 어느 때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슥 3:17)”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나 같이 부족한 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삼키기 좋은 말씀만 주시는 것 같을 때에는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후다닥 넘기기도 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제 삶에서



김효은 순장은 ‘온맘통독’ 성경통독으로 받은 은혜를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기 위해 편지를 썼다.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에는 운동을 뛰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고난의 때를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삶인가에 대해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별과 같이 많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저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좋은 직장으로 빚어 주셔서 보배로운 것들을 많이 담기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순간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딸 효은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올바르게 있는지 의문이 드는 순간마다 언약을 붙잡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포로기에도 눈물 흘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선지자들을 통해 이 땅이 회복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셨음이 말씀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물과 피를 흘리신 그분의 고통과 아픔을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언약의 성취이며, 말씀은 저를 비롯한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힘입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때 “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이 오하려 독이 될까 마음을 졸이며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한 분에게라도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전하시는 애뜻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희를 토닥이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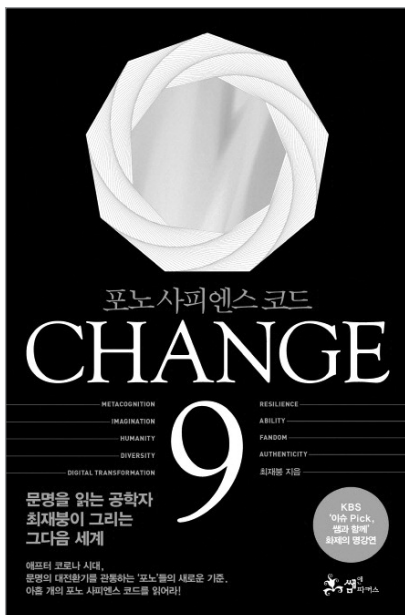
/ 김효은 순장(여호수아공동체)

“말씀은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힘”



책 읽어주는 목사

뉴노멀 시대, 삶과 트렌드 변화



CHANGE 9(체인지 나인)

최재봉 저 | 쌤앤파커스 | 16,800원

〈CHANGE 9〉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될 문화코드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아홉 가지 화두는 메타인지, 이때지네이션, 휴머니티, 다양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회복탄력성, 실력, 팬덤, 진정성 등이다. 이 책의 저자 최재봉 교수는 '무엇이 기존 경제사회를 흔들어놓고 있는지'

를 질문하면서 가치변화의 중심에 있는 신인류를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른다.

신조어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여기는 지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인류를 뜻한다. 포노 사피엔스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마켓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이루어내며, 새로운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들의 행동 변화와 소비패턴을 읽으면 미래 사회의 변화와 기준을 간파해낼 수 있다. 포노 사피엔스들이 만든 뉴노멀 시대 프레임에 적응하려면 최소한의 생활방식과 덕목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홉 가지 핵심가치다. 저자는 아홉 가지 핵심가치에 적응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소개한 아홉 가지 핵심가치 중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것이 '메타인지'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팬덤'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세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드론 천재'로 공군참모총장배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익산초등학교 4학년 진도영군이 그렇다. 그는 12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학교 출신이다. 혼자서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얻어 공부하고, 드론, 코딩, AI 인공지능을 유튜브와 구글의 오픈소스를 이용해 만들어

내 시간을 놀라게 했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가 무질서상태일 때 대한민국은 가장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 IT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문과생들의 상상력이 있었다. 그들은 뉴스로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코로나 알리미' 어플을 개발했다. 덕분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사회 안전과 방역, 정보공유에 큰 보탬이 됐다.

이 책에서는 유튜브(YouTube) 60억 조회수(2016년 1월~2020년 8월)를 달성한 스마트 스테디 김민석 대표를 예를 들고 있다. 그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가치를 이동해서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핑크퐁 노래 '아기상어'를 만든 주인공이다. 2500개가 넘는 로열티를 받고 있고,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해내는데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는 표준이 달라진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네트워크의 정보력, 상상력, 진정성, 창의성 등을 바탕으로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눈부신 과학기술 세계를 보여준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 책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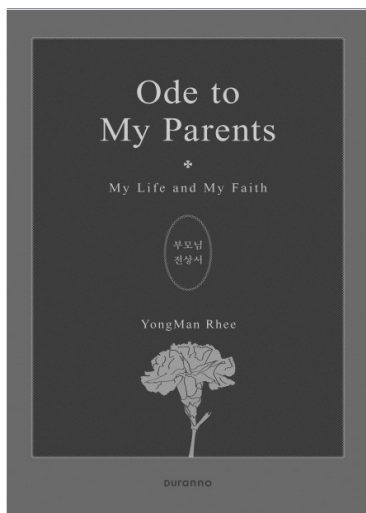
이 책은 근본적으로 진화론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문명사적으로 가장 발전한 사피엔스(현생인류)는 경제와 과학 분야를 앞세워 진화를 거듭하면서 생존에 유리한 것을 취사선택하며 진보해왔다는 저자의 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류역사가 언제나 시장논리에 근거한 디지털의 정량과 계량적인 데이터로만 예측 가능하고 발전해 왔을 까라는 점에서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뉴노멀 세계의 중심축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수단이지 궁극적인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동시에 포노 사피엔스의 마음과 팬덤(추종자들)의 어두운 부분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성경적 세계관은 내면이 변해야 외부세계가 변할 수 있지, 외부의 환경이 무한대로 발전한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항상 윤택해지고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잘 분별하며 이 책을 읽는다면 코로나19 이후 삶과 트렌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인 것은 분명하다.



김상수 목사
(대전 온누리교회)

두란노 신간

이용만 장로의 부모님 전상서



〈Ode to my parents〉

이용만 저 | 두란노 | 14,000원

“홀로 남쪽으로 온 이후 지금까지 살면서 매 순간 통일이 되면 부모님 묘소를 찾아야지 다짐했습니다. 부모님 영전에 앞드려 기도드리며 ‘그래도 승만이 서울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모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인사드리고, 지난 시절 겪은 많은 일들과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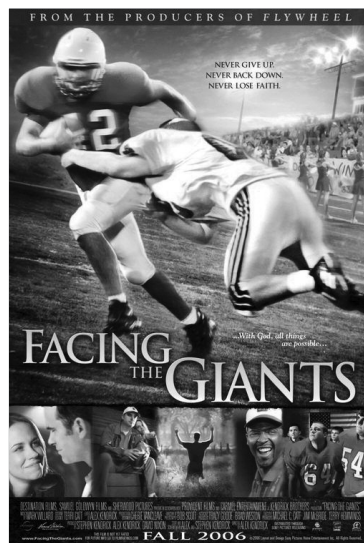
70년 전, 17세 혈혈단신 청년에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 청년은 미국의 폭격으로 부모를 잃고 한국전쟁의 비극 한복판에 홀로 놓여 있었다. 그 청년은 온갖 설움과 구사일생을 겪으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 청년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의 살림을 도맡는 재무부장관이 되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온누리교회 명예장로이자 전 재무부장관 이용만 장로다.

이용만 장로가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부모님께 고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용만 장로가 부모님께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알뜰살뜰하게 내조해준 아내 자랑부터, 신앙생활, 아버지의 교육열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까지 감동의 연속이다.

“오로지 아버님과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기록으로나마 영전에 올리고자 한국전쟁 70주년, 부모님과 헤어진 지 70년에 즈음 눈물로 회상하며 정리했습니다. 저를 대하듯 제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전우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승부’

사일로 기독교학교의 미식축구팀 감독 테일러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다. 가정에서의 문제, 계속 지기만 하는 미식축구팀, 직장마저 위협을 받는다. 그런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했더니 위기가 기회가 되고,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2006년 개봉한 영화 ‘믿음의 승부’는 ‘파이어프루프-사랑의 도전’, ‘용기와 구원’, ‘기도의 힘’, ‘오버커머’ 등 다양한 기독교 영화를 제작한 알렉스 캔드릭 목사의 작품이다. 알렉스 캔드릭 목사가 섬기고 있는 미국 조지아주 소재 알바니에 위치한 서우드교회에서 이 영화를 제작했다.

저예산 독립영화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영화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개봉 당시 전 세계 56개국에서 관객 2천만 명이 이 영화를 봤다. 10만 달러로 제작한 이 영화는 3,855만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남겼다.

“하나님은 같은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불가능이 없다.”

이 영화가 주는 핵심 메시지는 희망이다. 이 영화를 제작한 알렉스 캔드릭 목사와 서우드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희망을 선물했다.

에이스 선수가 떠난 미식축구팀이 어떻게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영화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저 그런 미식축구팀 우승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다. 이 영화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닮았다. 실력과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 인생의 슬럼프에 빠진 성도들, 앞길 막막하게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한다.



1단계 공사가 완료된 북측 동빙고 근린공원 전경.

1단계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공사 완공

2단계 공사 준비 중 ... 2021년 12월 완료 예정

온누리교회 건축위원회가 ‘1단계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공사’를 마치고, ‘2단계 청소년수련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및 체육관 건립공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작한 1단계 북측 동빙고 근

린공원 경관 및 조경 공사는 지난 6월 30일 완공했다. 2단계 남측 동빙고 근린공원 청소년수련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및 체육관 건립공사는 사전협의를 위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가졌고, 시공사 선정에 위한

입찰공고를 준비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시공사가 선정되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동빙고 근린공원 청소년수련시설 건축과 동빙고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2021년 12월경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사전녹화

9월 말 온누리교회 맞춤전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예정

60세 이상 부모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이하 행복드림콘서트) 사전녹화가 지난 15일(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됐다. 8월 2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행복드림콘서트’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됨에 따라 사전녹화를 실시했다. 행복드림콘서트 사전녹화 영상은 9월 말 온누리교회 맞춤전

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행복드림콘서트 요청자들은 각 가정에서 편지와 꽃, 선물(교회에서 제공하는 토크이크)을 준비해서 부모님과 함께 편한 시간, 원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행복드림콘서트 사전녹화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색소포니스트 이광재, 가수 이무송, 노사연, 신인선의 공연, 스포츠해설가 이

영표, 배우 윤유선, 하정우의 환영영상, 결신기도, 축복기도 등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또한 ‘나의 부모님만을 위한 행복드림콘서트 영상’을 신청한 요청자들에게 9월 25일(금)까지 이메일로 완성된 영상을 보내준다. 행복드림콘서트 사전 녹화 영상과 요청자가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편지를 편집한 영상이다.

영적성벽 재건 위한 52일 온라인 기도회 ‘STAND’

여호수아공동체 매주 월~토 오후 10시 온라인(ZOOM)

여호수아공동체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예배와 영적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지난 9월 14일(월)부터 오는 11월 4일(수)까지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이하 STAND)를 실시하고 있다. STAND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여호수아공동체 순에 소속된 청년들은 순에서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면 되고, 여호수아공동체 순에 소속되지 않은 청년들은 온라인으로(<https://forms.gle/qiBMbLkKmm>

ZXS9T6) 신청하면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준다.

조원형 형제(기획MC)는 “STAND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 시대를 향한 애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했고, 문정민 형제(위드그룹 그룹장)는 “52일 동안의 기도회 여정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여호수아공동체 청년들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2-570-752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내년 상반기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9월 22일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드림홀

온누리선교재단이 2021년 상반기(1~7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추천 행사를 9월 22일(화)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지하 2층 드림홀에서 실시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 신랑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에서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면 가능하다. 단 신랑신부는 등록교회에서 확인되는 신앙인이어야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를 예약하려면 예약금 50만 원과 교인확인증 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결혼예배 예약 추천은 9월 22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한 성도들만 할 수 있다.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을 추첨한 다음 그 순번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선점 예약한다. 2021년 상반기 온누리교회 결혼예배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만 진행하며 주례는 온누리교회 목사만 가능하다. 문의: 02-570-7505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영상공모전

‘CGN을 부탁해’ 10월 31일 마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되었던 제1회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영상공모전 ‘CGN을 부탁해’ 일정이 확정됐다. 10월 31일 토요일 마감한다. 영상공모전 참가를 원하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들은 10월 31일까지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복음을 담은 콘텐츠’, ‘CGNTV 유튜브 채널 SOON, KNOCK, 붓소렌즈 홍보영상’, ‘청년 대상 CGN

TV 후원독려’ 중에서 한 가지 주제의 영상을 제작해서 접수하면 된다. 영상공모전에 제출할 영상은 15초에서 3분 이내의 길이로, 1GB이내 HD화질이여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500만 원, 최우수상(2명) 100만 원, 우수상(5명) 50만 원 등이 주어진다.

문의: 02-3275-9322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라인 액티브S클럽 수강생 모집

10월 16일~11월 13일 ZOOM 실시간

사회선교부 은빛날개사역팀에서 온라인 액티브S클럽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온라인 ZOOM(실시간)으로 실시한다.

액티브S클럽(Active Senior Club)은 퇴직이나 은퇴 후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은빛날개세미나의 새로운 명칭이다.

온라인 액티브S클럽에서는 강의와 독서토론 형식의 세미나가 열린

다. 은퇴 후 헌신자로 살아가기, 장년기 및 노년기 삶의 의미와 헌신 등을 주제로 이비오 목사가 강의한다. 은퇴 후 삶의 방향을 고찰하는 도서를 선정해서 4주 동안 독서토론을 한다.

온라인 액티브S클럽에는 은퇴(퇴직)자 또는 은퇴 준비자, 사회선교에 헌신하고 싶은 30대 이상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5336-5820

두란노어머니학교 온라인 봉사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온라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역할을 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유튜브 채널은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는 ‘행복한 아내, 좋은 엄마가 되는 길’, 코로나19로 만날 수 없는 두란노어머니학교 스태프들과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고민을 멘토와 함께 해결하는 ‘멘토와 함께하는 티타임’ 등이 있다. 문의: 02-2182-9114

경기A공동체 과천B다락방 비대면 아웃리치

충청북도 구세군보은교회에 전도용품 지원

경기A공동체 과천B다락방은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비대면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경기A공동체 과천B다락방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면 구세군보은교회에 전도용품을 전달했다.

김윤택 사관(구세군보은교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정이 매우 어려웠는데 온누리교회 경기A공동체 과천B다락방 덕분에 집집마다, 상가에, 우체통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인사했다.

/ 김영선 기자

■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수료 간증



/ 김성중 성도(신용산공동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전환점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평신도다. 40년 이상 다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라는 직분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데이 크리스찬’이 적당할 것 같다.

일요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반복적인 생활을 했다. 깊이 보다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성경공부, 봉사활동, 선교, 교회 모임 등은 나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결혼하고 아내는 장모님이 다니는 온누리교회로 옮겼다. 나는 다니던 교회를 다녔다. 아내가 2018년부터 온누리교회를 함께 다니자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온누리교회로 옮겼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예배방식이 내가 다니던 교회와 너무 달라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서 순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열떨결에 나도 순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순예배를 드렸다. 순예배를 드릴 때마다 순장님께서 일대일제자양육을 제안하셨

다. 그 덕분에 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했고, 열 한번의 만남을 통해 신앙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심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동안 어렵풋이 알고 있었거나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웠다.

양육자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경험했던 인생여정과 신앙적 체험 등을 나눴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

또한 매일 성경읽기, 기도하기, 큐티하기 등을 실천하면서 더 깊은 말씀 지식을 얻었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웠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은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 같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나를 위해 수고해주신 양육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양육자님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무사히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 창조신앙스쿨 참가자 간증



/ 김계리 성도(여호수아공동체)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창조신앙스쿨’이라는 이름 안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듯하다. 창조신앙스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신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배우는 스쿨이다. 이전에는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 여겼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창조론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창조론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믿지도 못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 빅뱅이론 등에 대해서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창조론을 배우지 못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창조론은 신화 같은 이야기로 느껴져서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창조신앙스쿨을 수강하면서 왜 창조론인지, 창조론이 복음을 전하는 데 왜 필요한지를 깨달았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창조론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2년 전에 사두고 읽지 못했던 <한손에 잡히는 창조과학(이은일)>을 읽었는데 강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먼저,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통해 과학적으

로 창조론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알 수 있어 좋았다. 진화론에 반대되는 화석, 그랜드 캐니언, 노아 홍수의 흔적 등을 볼 수 있는 지역들, 거대한 우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안전한 지구 등의 증거를 통해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창조신앙스쿨에 참가하면서 그동안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 온 학교 교육의 잘못된 관점의 안경을 완전히 벗을 수 있었다. 차세대들에게 창조론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열망도 생겼다.

마지막으로 ‘창조-타락-심판-구원’으로 연결되는 창세기의 내용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진정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땅 지구에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감격적이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우연은 없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다. 나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으로 태어났음을 깨달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알고 싶고, 그에 합당하게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 온라인 OBC 로마서 참가자 간증



/ 조익래 성도(대전 온누리교회)

이제 영원의 길을 걷고 싶다!

신약의 핵심인 로마서 강좌를 좋은 교재와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말씀으로 수강하게 된 것은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었다. 매주 강의 보고서와 간증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학습효과는 반감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강의를 듣고, 간증문을 제출하는 모든 시간들이 참 감사했다.

나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은 그다지 성실하지 못했다. 육신의 정욕이 강했고, 신앙생활도 좋지만 죄의 달콤함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포스트모던시대 사조에 다소 물든 탓도 있다고 생각된다. 예배가 길어지면 졸이 쉬었다. 때때로 교회모임보다 직장동료와의 모임을 더 좋아하고 즐겼다. 위기의 파도가 밀려올 때는 기도도 좋지만 어찌하든 확실한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예수님과 전적으로 친하고 사랑하기에는 무엇인가 꺼려지는 요소들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OBC 로마서 강좌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버려두면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대로 가면 나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대와 공간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 예수님과 더욱 화목하게 될 것 같다.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다.

목사님께서 “가장 고단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새벽기도를 시작했다. 새벽기도 시간에는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가운데 거하고 싶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싶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형제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싶다. 나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 내가 나아갈 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은혜 가운데에 잠겨 감사하며 영원의 길을 걷고 싶다.

■ 온라인 OBC 성경통독 참가자 간증



/ 정인에 성도(서초D공동체)

신앙유산을 물려준 기회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성경동화를 들으며 자랐다. 크면서는 설교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배웠다.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기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대부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리적인 연결을 한 공부는 해보지 않았다. 성경을 읽는데 꼭 지리적 배경지식이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피하곤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OBC 성경통독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됐다. 성경을 더 알고 싶다는 욕망과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다시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싶어서 온라인 OBC 성경통독 과정에 참가했다. 엄마가 된 뒤 6년 만에 성경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상준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구약 성경의 맥을 따라갈 수 있었다. 목사님께서 적당한 난이도로 구약의 시대적 배경, 흐름, 지리 등을 알려 주셨다. 중간에 추천 영화까지 곁들여 주셔서 지루할 틈 없이 유익하게 강의를 들었다. 어렵사리 임신한 친구에게 태교용으로 이 강의를 공유해 줬는데 “너무 좋은 강의를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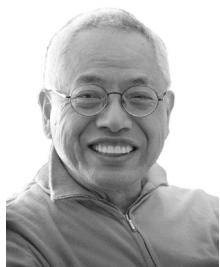
온라인 OBC 성경통독 과정을 통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때 가졌던 의문들이 이번 온라인 OBC 성경통독 과정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되었다. 정말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한없이 보듬어 주시고, 필요할 때는 훈육을 망설이지 않는 정의로운 분이시다. 또한 온 인류를 동등하게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 사람이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고 유일하신 창조주시다.

온라인 OBC 성경통독 과정에 참가하면서 아이들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로 연결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 더없이 기뻐다. 어린 시절 성경 테이프가 늘어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틀어주시던 엄마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회로까지 이어져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귀한 강의를 해주신 이상준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귀한 수업으로 나를 인도해주시고,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장로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릴레이기도

양육칼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손한기 장로
(OCC공동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대
한민국이 주께 범
죄하였나이다.
저희 죄들을 자
복하오니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
리가 소유한 모든
축복을 내 손, 내
힘으로 얻은 것으
로 여기며 주께 감

사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주여”라고 불렀
지, 주의 이름을 진정 공경하지도 않았으며,
주의 규례를 무시하며, 주의 이름을 만홀히
여겼나이다.

주님이시여, 주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합
니다. 가난하고 우상과 미신만을 섬기며 두려
움과 질병으로 가득했던 이 땅이었습니
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구원이 없었던 이
땅에 어찌하여 그토록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
내주셨나이까. 그들이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
기하고 이 땅에 와서 온갖 풍토병에 시달리며
순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귀한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나이다. 성령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으
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해서 십자가가 무
수히 많은 나라가 되었나이다.

그러나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억압에서 해
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저희들은 선교
사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
다. 6.25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
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자유와 축복
이 마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참으로 망각과 교만으로 가
득 찬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
가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거짓
이 만연하고 분열로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
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히 들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겔
33:11).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죄
를 회개하며 통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는 언제나 예배드
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텅 빈 예배당을 보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놀라움
과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마치 “만군의 여호
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
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
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는 말라기 말씀
이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
다.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우리를 다시 부르시
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참
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
와를 두려워하며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
기며 순종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싸울 용기
와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락하여 주신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가 지켜내게 전략을 주
옵소서. 한국 교회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
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
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교하
는 각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소서.

한국 교회의 회개운동과 영적싸움에 온누
리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보다
앞장서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끝까
지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김지훈 장로
(여의도공동체,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장)

교회나 학교, 사
회에서 만나는 많
은 사람들이 행복
하지 못하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특
히 경영자 교육과
정에서 만나는 많
은 CEO들이 기업
경영에는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승
승장구하고 있지

만, 그들의 내면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경
우를 많이 보게 된다.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
어나가고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은 있지만, 부
하직원들이나 동료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 친구가 없거나 배
우자나 자녀와 관계가 좋지 못한 경우가 많
다. 이러한 문제는 그 사람의 성품이 나빠서
도 아니고, 부부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없어
서도 아니다. 어떻게 해야 주위 사람들과 좋
은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거나
이미 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관계회복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행복
하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명예나
부를 거머쥔 사람들조차 왜 행복하지 않을
까? 첫째, 행복의 조건이 좋은 관계에서 온다
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부와 명예, 성공이
라는 잘못된 목표를 위해서만 최선을 다하기
때문일 수 있다. 둘째, 가정이나 사회, 교회 공
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갖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셋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세상
의 가치관을 좇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세
상 염려와 돈의 유혹과 욕심을 버리라”고 경
고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예배와 성경공부,
제자훈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부와 명예와 성

공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툼과
시기, 상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크리스천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고 말씀하셨
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것을 강조하셨다. 가장 중요하고 으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
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열심
이면서, 교제하며 빵을 떼는(행 2:42) 일에는
그다지 열과 성을 다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
다보니 나와 내 가정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이나 이웃과의 관
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질서에서 무질서한 방
향으로 움직인다. 쇠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녹이 스든다. 쇠의 녹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다. 이 법칙이 우리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사
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했는데 직장생활과
자녀양육에 전념하다보면 부부의 사랑이 어
느 사이에 식어가고, 정(情)으로 살거나 자식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부부들이 많다.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부부나 자녀,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결코 저절로 좋
아지지 않는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 관계개선을 위해서
는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공감대화로 소통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
는”(롬 12:15)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
를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인도될
것이다.

신앙에세이



김한국 전도사
(여호수아청년부)

“두껍아 두껍아 현
집 줄게 새 집 다오.”
어렸을 적 친구들과
과 함께 놀이터에 돌
러 앉아 두꺼비집을
만들면서 부르던 노
래다. 두꺼비집을 지
을 때는 먼저 바닥을
우묵하게 판 다음 한
손 주먹을 그 안에
넣고, 다른 손으로 흙
(모래)을 덧쌓아 가

며 두드린다. 흙이 단단해지면 손을 살그머니
빼는데 이때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아야 한다.
가장 튼튼하고 단단한 두꺼비집을 만들기 위
해서 아이들은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최
선을 다한다. 그리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두꺼비집이 완성된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도 어느덧 반년 넘는 시
간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깊어
지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바로 ‘예배
의 모습’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예배는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마땅했다. 온라인으로 집
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법 불경건한 모습
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일
반적인 상식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
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제는 예배당
에 나가지 않고 방역수칙에 따라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
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예배에 대한 기독교인들
의 상식이 바뀌었다. 차선이 최선이 된 지금,
본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상황적 한계에서의 최선은 언제나 최고가 될 수 있다

누가복음 21장에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 이
야기가 등장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자들이 현
금 넣는 것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 넣
는 것을 보시고는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과부는 자
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
이다. 상대적 기준에서 보면 과부의 두 렵돈은
부자들의 헌금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다. 하
지만 그 과부는 최선을 다했다. 외형의 모습이
최고는 아닐지라도 그 과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

최선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오직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
기에 과부의 두 렵돈은 최고의 헌금이다. 이처
럼 상황적 한계에서의 최선은 언제나 최고가
될 수 있다. 가장 높고 화려한 건물은 아닐지라
도,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단단하게 쌓

아 올린 아이들의 두꺼비집이 최고의 집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변화된 상
황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상황적 한계에서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다. 교
회에 모일 수 없다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
음을 다해 모이는 것이 최선의 예배이다. 모일
수 있다면 전심으로 모이는 것이 최선의 예배
이다. 최선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가난한 과부
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돌
러 앉아 최고의 두꺼비집을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해 흙을 두드리는 것처럼 말이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
명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씨앗이 움트고 있을
것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
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공동체

남은 시간과 힘을 하나님을 위해 드렸습니다. 32절을 보면 상업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참여했습니다. 하루라도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 기간 장사를 내려놓고 수입을 포기하고 참여했습니다. 관리들뿐만 아니라 평민들,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참여하는 일

“그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성의 굽은 곳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입구까지 그다음 구획을 열심히 복구했습니다”(20절).

느헤미아가 바룩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다른 구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가입니다. 자신에게 할당된 것보다 많은 부분을 힘써 일하는 모습을 느헤미아가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귀찮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다른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오물을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심한 악취가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고 보수하는 일이기 때문에 뱀새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더 귀찮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각자 맡은 지역에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드고아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 다. 대개 고된 노동 앞에 서면 사람의 땀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이들은 소매를 걷어 올리고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껌을 부리며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몸이었지만 힘들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드고아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드고아 평민들이 두 배의 일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지식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아, 축매제 같은 지도자

오늘 본문에 ‘그다음’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일의 순서를 밝히는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했고,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의식이 선한 일을 이루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기러기 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V자대형을 이루며 이동합니다. 기러기만이 아니라 여러 새들이 그렇습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제일 앞서 나는 새가 가장 많은 공기 저항을 받고 그 뒤에 나는 새들은 비교적 저항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V자대형을 이루며 날아가다가 선두의 새가 지치면 일행으로 돌아오고, 또 다른 새가 제일 앞서 날게 됩니다. 만일 날다가 어떤 새가 문제가 생겨서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두 세 마리의 새가 함께 이탈해서 혼자 외롭지 않도록 곁에 있다가 본대로 복귀할 때까지 함께 해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성적이지 않고, 본능에 충실해 살아가는 이 새의 무리마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무리를 지는 선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은 계속 연결해 가는 새들의 본능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성품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다음은 바로 나라는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라는 생각이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나를 비판하면 원수가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내 의견에 반대하고 심지어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아의 이 기록을 읽을 때 매우 지루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느헤미아에게는 가장 감동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이 명단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느헤미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축매제와 같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켰지만 축매제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실 때 소금은 축매제입니다. 소금이 녹은 물은 짜지만,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아는 모든 변화를 일으켰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주장하지 않았고, 자신을 녹여 희생했습니다. 느헤미아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이 수많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화음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아는 40여 개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듣고 아름다운 지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차이와 능력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차이가 때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차이와 갈등을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은 연결해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온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선한 제도입니다. 어느 시대보다 느헤미아가 보여줬던 모습, 링컨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존재하는 모든 긴장과 갈등이 우리를 허무는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서로를 끌어안는 창조적인 힘으로 하나 되는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함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아가 그 시대 백성들과 함께 이루었던

선한 일의 역사가 이 시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이 이뤄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코로나19로 이 나라 주요 도시가 올해 봄부터 3개월 넘게 통행금지 상태였다가 차츰 완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주일예배와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믿음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 피난 온 가정, 무장 이슬람 단체에 두 달 동안 감금되었던 형제, 계속되는 전도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청년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격리상황이 오히려 청년 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매일 말씀과 기도, 말씀통독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에서 훈련 받은 지체들이 새로 믿은 친구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지에서는 저희가 만난 현지인 NS형제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성공과 명

예와 재물을 좇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만족과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마을에 온 단기선교팀을 만나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초대받은 꿈학교에서 3일 동안 예배와 찬양, 말씀과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방언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 중에 ‘너는 왜 의심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신가요?”

“나는 네가 찾고 있는 그다.”

“제가 누구를 찾는데요?”

“네가 읽고 있는 책이 나의 책이다.”

사역자로 변신한 어느 청년의 간증

이 음성과 함께 큰 빛이 비쳤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샌들을 신은 발을 보았습니다. 곧이어 뜻을 모르는 서너 개의 단어들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빛 속에서 만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 문입니다.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세 번 전도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꿈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오가는 길에 무장이슬람 단체를 만났습니다. 위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친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양육과 교회개척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청년공동체에서 6개월째 함께 사역할 형제들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부르시고, 깨워주시고, 근신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청년이 사역자로 나아갈 지역을 보여주십시오. 코로나19로 닫혀있는 열방의 문을 속히 다시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보내 주십시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라”(사 60:21-22).

/ 이다윗, 정빛 선교사(중동 J국)

온누리교회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셀 7층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안산 온누리M센터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해외 온누리교회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중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중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조월읍 진새골길 166 ■미서부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정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insaibash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오 야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국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شان zhongdianzhan)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o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e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미국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01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L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클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한국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온누리교회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셀 7층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안산 온누리M센터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해외 온누리교회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중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중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조월읍 진새골길 166 ■미서부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정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insaibash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오 야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국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شان zhongdianzhan)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o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e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미국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01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L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클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온누리교회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셀 7층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안산 온누리M센터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해외 온누리교회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중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중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조월읍 진새골길 166 ■미서부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정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insaibash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오 야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국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شان zhongdianzhan)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o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e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미국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01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L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오클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온누리교회			
국내 온누리교회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셀 7층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안산 온누리M센터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해외 온누리교회 ■기도처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중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중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조월읍 진새골길 166 ■미서부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정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insaibashi Chuoku Osaka Japan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오 야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국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526路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شان zhongdianzhan)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o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e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미국 ■미북부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0			

청 년 들 을 위 한 진 짜 인 터 뷰

핀터뷰

크리스천 청년들의 삶의 물음표를 함께 고민하고
멘토들의 삶이 담긴 '진짜' 대담을 나눕니다

임은미 선교사, 윤정희 사모, 이규 목사의
청년들을 위한 핀터뷰를
유튜브 **SOON**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윤정희 사모



임은미 선교사



이규 목사

핀댓글



<크리스천의 연애 & 결혼_김남국 목사>
우와... 청년들의 큰 고민에 현명한 말씀으로
시원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진로고민에 선택하기 망설여진다면_이성호 목사>
몇 달간 진로고민으로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허*린)



<인생의 진짜 Flex_하준파파>
아직 아무것도 갖춰놓은 것 없는 20대인 제게
꼭 필요한 조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y*니)



<나의 연약함, 트라우마_김선교 선교사>
핀터뷰는 제게 꼭 필요한 말씀만 해주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그렇게)

SOON 바로가기

